

생태주의 교육 담론으로서 웹툰의 위상과 활용 - 조석의 『문유』를 중심으로 -

김 경 애*

1. 서론

21세기를 대표하는 패러다임 중 하나는 생태주의이다. 일찍이 생태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한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은 사회적 위계 구조의 폐지 없이 생태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생태론(social ecology)’을 주장했다. 그는 생태 위기가 근대로부터 시작된 권력과 자본의 밀착 관계와 이로 인한 지배와 피지배의 사회적 위계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런 견지에서 바라보면, 사회적 위계 구조의 파괴 없이 인간과 자연의 정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 북친은 기존의 사회적 위계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관점의 사회 관계를 구축할 때 진정한 생태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친의 생태론이 근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다.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도 북친의 주장에 상응하는 논리를 편다. 근대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에 대한 포

*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괄적 허용을 이념적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우는 이 가치관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보다 개인의 획일화를 획책하고 불평등 구조를 양산하여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해밀턴은 경제 성장에 대한 무분별한 추구가 이른바 ‘페티시’가 돼버렸고, 경제의 성장이 인간 행복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¹⁾

사회적 생태론은 환경 문제를 경제문제로 접근해온 오늘날의 각종 법률 및 제도에 경종을 울려준다. 현대의 환경 문제가 근대자본주의의 방만함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에 대한 각종 경제적 정책 및 해법들 - 오염부담금, 전기차 보조금 등 - 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출범시키고 어느 정도 유효한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적 이익이라는 극강의 자본주의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 예시가 바로 전쟁이다.

최근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루슬란 스트레레츠 우크라이나 환경보호장관은 “러시아가 벌인 전쟁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3,300만t 배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도로에 2년 동안 1,600만 대의 자동차가 추가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그는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도 4,9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BC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동물 600종, 식물 750종의 생존이 위협받았다고 보도했다. 2022년 10월에는 러시아 군함의 수중 음파 탐지기 탓에 흑해에 서식하는 돌고래 100마리가 집단 폐사했다는 연구 보고가 제출되기도 했다.²⁾

러우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동식물의 집단 폐사는 정치 및 경제 논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조적 방책일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1) 클라이브 해밀턴, 『Growth Fetish』, Polity, 2003, https://ko.wikipedia.org/wiki/클라이브_해밀턴

2) 서유진, “러 전쟁으로 환경범죄 2000건…온실가스 3300만t 배출”, 《중앙일보》, 2022.1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753>

없음을 극단적으로 증명한다. 결국 환경은 북친이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이며, 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이 담당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현대 교육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온 것으로 보인다. 현대 교육학이 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학문적 바탕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다. 임광국은 성적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속에 함몰된 교육적 현실의 근본적 원인이 아이러니하게도 교육학의 학문적 뿌리인 근대 계몽주의에 있다는 주장을 편다.³⁾ 근대 계몽주의의 기획으로부터 시작된 ‘개인화’ 경향이 신자유주의적 비인간화와 결합하면서 교육에서 ‘인간성’을 거세하고, 교육 주체들 간의 관계를 ‘성과’와 ‘경쟁’으로 특징짓는 파편화된 개별자들의 피상적 관계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논리는 교육에도 그대로 이어져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켜 왔다.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비교육적 현상은 학교가 더불어 어울리는 사림과 교육 공간이 아니라, 입시의 무한경쟁 체제로 전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인간성을 거세한 성장의 논리는 교육 공간인 학교를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시켰고, 현대 학교는 사회로부터 분리된 교육의 터전이 아니라 소규모의 사회를 방불케 하는 사건, 사고의 현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위에서 제시한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은 서열로 학생들을 평가해온 성적지상주의적 교육의 자장 안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곧 성장이라는 논리와 행복이라는 논리가 모순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 공간 안에 이런 약육강식과 ‘지배/피지배’의 차별적 행태가 존재한다는 점은 현대 교육학의 근

3) 임광국, 「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론을 통한 근대적 교육담론의 극복 가능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간인 계몽주의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교육 풍토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북친의 사회적 생태론은 최근 학교 교육의 모순적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 공해준다. 그의 논리는 우선 역설적으로 학교 교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미봉책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형국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사회가 학교의 거울이 돼버린 현 상황에서 사회 구조의 개선 없이 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변화는 오히려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령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 식물들, 동물들, 기후와 토양,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태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태학적 관계성의 담론이야말로 근대 계몽주의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물, 환경, 지구와 인간의 관계성 회복을 중심사건으로 하는 서사는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자극하여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등학교에서 생태담론, 특히 사회적 생태담론을 다룰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이를 환경 교과목으로 별도로 시행할 수도 있겠고, 국어나 윤리 등 현행 교과목에서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교과목에 관련된 논의도 필요해 보이고, 생태담론을 교과서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서사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며,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주어진 시간(소설의 경우 독서시간) 동안 서사는 우리에게 특정한 세계를 재현(representation)하거나 재진술(recounting)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우리는 인생의 갈등을 공유하고 있기에 작품으로부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안에 몰입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에 잠재된 어떠한 갈등에 대해 눈을 뜨기도 한다. 독서는 서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독자가 서사와 상호작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변화와 기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서사 내부에서 추동되는 문화적, 심리적, 도덕적 갈등들은

독자의 스키마를 자극하여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좋은 이야기와 잘 짜인 논쟁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상대방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브루너의 진술은 이러한 점을 상기시킨다.⁴⁾

이 글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쉽고 친화적인 텍스트로서 서사, 그중에서도 ‘웹툰’이라는 신생 장르에 주목하고자 한다. 웹툰은 K-문화의 스토리뱅크로 최근 떠오른 웹 콘텐츠의 하나로 가볍게 즐기는 문화라는 의미로 소위 ‘스낵컬처(Snack culture)’로도 알려져있는 디지털 서사물이다. 웹툰은 웹으로 서비스되는 만화의 일종으로, 2003년 네이버의 플랫폼 개설과 함께 떠오른 한국문화산업의 대표적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중 하나이기도 하다.⁵⁾

웹툰이 주목되는 이유는 웹툰이 일단 중등 학습자들에게 매우 친근한 서사물이기 때문이다. 웹툰의 독자들은 61%가 20대 이하이며, 특히 10대가 31%를 차지한다.⁶⁾ 웹툰 독자들과 중등 학습자들 사이에 교집합이 상당하다는 증거인데, 이러한 결과치는 중등교육에서 웹툰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아울러 웹툰은 각종 사회적 이슈들을 무겁지 않으나 진중하게 다루고 있어 어렵지 않게 가치학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웹툰의 제재는 현대 한국의 사회적 문제와 밀착해 있는 것이 많다. 일찍부터 웹툰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4) 김경애, 「갈등의 합의와 교육적 활용」,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제71집(20권 2호), 2016, 36쪽.

5) ‘콘텐츠 IP, 가치를 높이는 확장 전략 톺아보기’, <Platum>, <https://platum.kr/archives/184011>

6) 2017년 와이즈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웹툰, 웹소설을 보는 앱 이용자 791만 명을 분석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791만 명의 웹툰, 웹소설 관련 앱 이용자의 연령대는 2017년 1월 기준 10대 254만 명, 20대 233만 명, 30대 169만 명, 40대 93만 명, 50대 4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대가 31%로 제일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용자 비중이 줄어들어 20대,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보고되었다.(한기호, “웹툰의 독자는 누구인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https://blog.naver.com/khhan21/221888024037>)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재로 많이 다루어왔다.⁷⁾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따와 은따가 되어 그림자처럼 살고 있는 여중생의 힘겨운 삶을 제재로 한 허5파6의 『여중생A』, 소도시의 소규모 마트를 중심으로 갑질과 잉여의 문제에 접근한 김규삼의 『쌈니다 천리마마트』, 팍팍한 회사원의 삶과 철거민의 문제를 한국적 신화와 결합시켜 깊이 있게 다룬 주호민의 『신과 함께』 등이 그러하다. 이외에도 『외모지상주의』(박태준), 『어서오세요 305호에』(와난), 『모두에게 완자가』(완자), 『입학용병』(YC/탁현) 등 ‘외모’라는 가치관 문제, 성소수자 문제, 교육 문제 등 현대적 문제들을 기반으로 한 웹툰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웹툰에는 인기리에 완결되어 종이책으로 출간되는 등 작품성이 검증된 것들이 많아 교육텍스트로 활용하기 용이하다.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으려는 작품인 조석의 『문유』도 종이책으로 출간되었을 뿐 아니라 해외에 판매되어 <문맨>(2023)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재탄생하는 등 작품성이 검증된 작품이다. 조석은 『마음의 소리』(2006~2020)라는 작품으로 중등 학습자들에게 매우 친근한 작가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데뷔작이기도 한데 장장 14년간 연재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외에도 『조의 영역』(2012~2013, 2017~2019 재연재), 『행성인간』(2019~2021), 『죄송한데 주인공이세요?』(2022) 등의 작품을 연재한 바 있으며, 2007 독자만화대상 신인상, 온라인 출판만화상, 2007~2009 대한민국만화대상 인기상, 2009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만화부문 인기상, 2017년 대한민국 만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한국의 대표적 웹툰 작가의 한 사람이다.

이 작품은 사회적 생태담론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동물, 환경,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격 생태론에도 포함되는 담론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평범함에 내재한 사회적 경쟁과 갈등을 보여주는 서사’, ‘동물, 환경, 지구와 인간의 관계성 복원 서사’라는 두 가지

7) 김경애, 「한국 웹툰 스토리의 특성과 문제점: 제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2019.

맥락에서 조석의 『문유』를 분석하여 작품에 내재한 사회적 생태론의 의미를 읽어내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작품은 웹으로 서비스되는 디지털 텍스트이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종이책을 대상으로 하며 인용도 거기서 한다.⁸⁾ 논의를 위한 방법론은 사회생태학과 최근 서사학 이론을 활용할 것이다.

2. ‘평범함’에 내재한 사회적 경쟁과 갈등

『문유』는 2016년 6월 15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총65화로 네이버 웹툰에 연재되었던 조석의 웹툰이다. 이 작품은 일견 코믹해 보이지만, 대사회적이고 비판적인 주제를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 ‘문유’는 주인공 이름인데, ‘MoonYou’라는 영어 철자를 고려하여 보건대 ‘달에 있는 당신’ 혹은 ‘누구나 될 수 있는 인물인 문유’ 등으로 이중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작가 자신이 “가벼운 만화를 그렸으면 좋겠다. 대신 무거운 주제였음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다고 작품의 창작 동기가 사회적 비판에 있음을 밝히기도 했었는데⁹⁾, 이 점은 작품 기획 의도를 기술한 ‘작가의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2050년 지구가 멸망하여 혼자 달에 남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고독함을 코믹한 터치로 그리면서 환경 문제와 동물 보호 문제, 위정자들과 과학자들의 윤리의식 등을 하나씩 제재로 호명한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현대적 문제들이다. 작자는 이러한 제재들을 코믹하게 활용하면서 주인공이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희망을 찾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8) 『문유』 총4권, 위즈덤하우스, 2017.

9) 조석, 「나의 삶에서 ‘문유’란」, 『문유』 제1권, 작가의 말, 4쪽.

작품에서 문유는 2050년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을 달을 이용해 막으려는 이른바 ‘달 방패 계획’의 일환으로 달로 떠났던 101명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명문 대학은 갔지만 중간쯤의 성적으로 입학했고, 동물학 박사로서의 업적도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그저 그런’, 존재감의 소유자였는데, 달에 갈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도 ‘중간이 좋아. 나서서 뭐해’라며 지원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모든 연구원이 준비기간이었던 8개월 동안 동물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유일하게 감염되지 않았던 그가 하필 달에 가게 된다.

달에 가서도 그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다. 달에서 유일하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던 그는, 그날따라 잠이 들었다가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에 타지 못해 달에 남겨지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 101인 중 한 사람이었던 캐롤 크루저가 번호를 매길 때 99를 100으로 잘못 말해버리는 바람에(나중에 이것이 레나드 스펙코비치 박사 때문에 한 고의적인 실수였음이 밝혀진다) 달에 남겨진다. 그런데 소행성 폭파 계획이 실패하여 완벽하게 부수어졌어야 할 소행성의 1/11이 지구에 추락하게 되었고, 지구에 살던 많은 사람이 죽고 문명도 거의 파괴되어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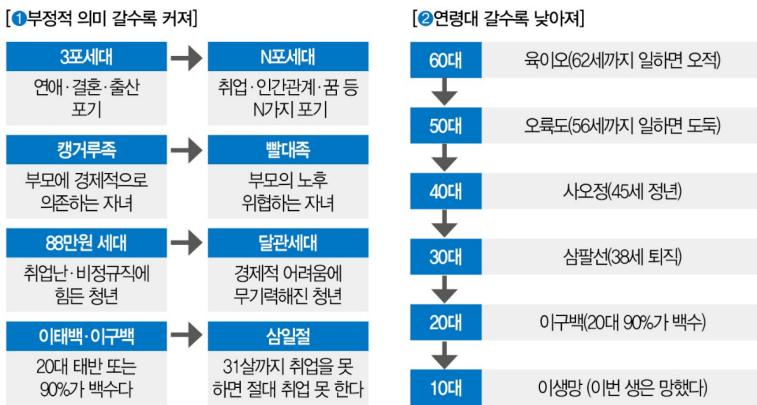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문유는 지구가 멸망했고, 스스로 살아남은 1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 이후,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 잘 구비된 달 기지에서 그는 비교적 ‘잘’ 살아간다. 스스로의 말에 따르면 “태어나서 제일 잘 살게 된다.” 더구나 이전에 지구에 살 때 받아보지 못했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 휴 제임스와 캐롤 크루저가 그의 삶을 윤색하여 생방송으로 내보냈기 때문이다. 방송과 통신시설이 모두 파괴된 지구에서 유일하게 TV를 통해 중계할 수 있는 것이 달에 남은 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지구로 생방송된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류의 희망이 된다. 그리고 새로 소행성이 나타나 지구가 새로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을 희생하여 지구를 구한다. 따라서 이 웹툰은 ‘평범한 인물이 지구를 구하는 이야기’라는 스토리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인 이른바 소영웅 서사는 대중적

서사장르에 매우 흔하다. 그런데 『문유』의 ‘평범함’은 보통 평범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이른바 한국적 평범함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위 ‘중간가기도 어렵다’는 한국사회의 경쟁 구조가 함축되어 있다.

『문유』는 현대 한국 사회가 극심한 경쟁 구조로 개인을 내모는 구조임을 간파하여 제시한다. N포세대, 이생망, 이태백, 오륙도, 헬조선, 달관세대, 중규직 등 최근 신조어들은 한국사회의 경쟁 구조와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신조어들이 나타내는 어려움은 대략 두 가지 맥락으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사회 진입 자체의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 진입한 후에도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인데, 최근 신조어들은 이를 촌철살인하여 보여준다.¹⁰⁾

먼저 사회진입의 어려움을 형상화한 신조어들의 예를 들어보면, 3포세대, 이생망, 헬조선, 캥거루 족, 빨대족, 달관세대 등이 있다.



〈그림1〉 현대의 신조어들¹¹⁾

10) 강서구, ‘이생망, 빨대족… 신조어가 독해졌다’, 《더스쿠프》, 2020. 1.28.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28>

11) 제시한 도표는 앞의 기사, ‘이생망, 빨대족… 신조어가 독해졌다’에서 인용한 것이다. 도표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이들은 대체로 구절이나 문장에서 맨 앞글자만 딴 축약어 형태의 낱말들이다.

대략 살펴보면, ‘이태백’, ‘이구백’은 20대 태반이 백수, 20대의 90%가 백수라는 뜻으로 20대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준다. ‘삼일절’이라는 말은 31살까지 취업을 못 하면 절대 취업을 못 한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이전에 회자되던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의미했다. 이후 등장한 ‘5포 세대’는 3포 세대에 더하여 ‘내 집 마련, 인간관계(친구)’를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는 5포 세대에 더하여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 N포세대는 ‘이제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대’를 뜻한다고 한다.

‘이생망’은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으로 대신 다음 생에서 잘해보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 ‘헬조선’은 ‘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의미이고, ‘달관세대’는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취업 경쟁이 심해져 이제 ‘달관한 것처럼 욕심 없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달관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이른바 ‘소확행’인데, 소확행은 맛집 탐방, 헬깅으로 몸 가꾸기처럼 ‘소소하지만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

그러나 어렵게 진입한 취업 장벽 안에서도 경쟁은 무한하다. 최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이어 ‘중규직’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정규직이 정년을 보장받으며 회사에 정식소속된 직원을 뜻하는 말이라면, 비정규직은 정년보장 없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는 임시직을 의미한다. 중규직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적인 고용 형태로서 계약 기간은 무기한으로 유지되어 대체로 정년이 보장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그보다 못한 일자리를 말한다.

사회진입 후 버티기 쉽지 않음을 형상화한 신조어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무친: 40대 직장인의 허무한 인생을 비유한 말. 본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지만, ‘40대 직장인은 고독하고 친구도 없다’는 말로 패러디돼 쓰인다.

www.kci.go.kr

사필귀정: ‘40대에는 반드시 정년퇴직한다’는 뜻이다.

오비이락: ‘50대와 비슷해 보이는 20대 직장인은 추락한다’는 뜻. 20대 직장인이 더 젊어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한다는 현실을 풍자한 말이다.

체온퇴직: 직장인들이 인식하는 체감 퇴직 연령인 36.5세가 인간의 체온인 36.5도와 같다는 점에 빗대어 만든 신조어이다. ‘삼팔선(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선방했다는 의미)’ 등과 함께 심각한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다.

잡노마드족: 직업(Job)을 따라 유랑하는 유목민(nomad)이라는 뜻의 신조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을 쫓아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일종의 ‘사회적 부작용 현상’으로 이해된다.

면장족: 퇴직 압력으로 일이 줄어 창만 바라보는 임원급을 의미하는 말이다. 퇴직에 대한 직장인들의 위기감을 반영한 신조어다.

암반수: 회사에 큰일이 터져도 그저 숨죽여 소리소문없이 자신의 일만 묵묵히 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모잉족: ‘mobile’과 ‘English’의 합성어로, 등·하교나 출퇴근 시간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영어 공부를 하는 ‘모바일 잉글리시족’을 뜻한다.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매달려야 하는 세태가 반영된 말이다.

나토족: NATO족, No Action Talking Only. 직장생활을 하면서 독자적인 사업구상을 계획하는 사람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배터리족: 30대 초반에서 중반의,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재충전 중인 사람들을 말한다. 5~10년 직장생활을 하다 부모나 해고,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가장들이 주축을 이룬다.

신(新)기러기족: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불안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지방의 의대·약대·한의대 등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탄생한 신조어다.

동지족: 퇴근길에 한잔을 외쳐대던 샐러리맨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자 퇴근이 무섭게 귀가하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¹²⁾

이전에 유행했던 소위 ‘사오정’(45세 정년)은 이제 옛말이 됐다. 최근에는 삼팔

12) 신조어들은 네이버 검색과 오픈사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선과 오류도라는 말이 등장했다. ‘삼팔선’은 38세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선방이라는 뜻이고, ‘오류도’는 56세까지 직장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이다. 이런 신조어들은 최근 한국 사회가 나이와 무관하게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복친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사회에서 환경 문제는 고사하고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도 쉽지 않다. 사람을 무한경쟁 체제로 내모는 한국 사회에서 잘 살기는 고사하고 중간이 되기도 어려운 것이다.

『문유』는 한국 사회에서 딱 중간이었던 남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문유는 명문대를 갔지만 중간쯤의 성적으로 입학했고, 졸업할 때도 우수하기보단 그저 그랬던 인물이었다. 그는 동물학을 전공했는데, ‘수컷 동물의 증성화와 사회성에 대한 관찰 보고’라는 그의 박사논문 역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그가 소속된 연구소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달에서 식용 동물 사육에 관여하는 연구원을 뽑는다는 것이었다. 많은 연구원이 지원했지만, 그는 지원하지 않았다.

그가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간이 좋아. 나서서 뭐해. 중간이 최고야. 그래서 프로도도 중간계에 살지”였다. 스스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했으므로, 합격할 가망성이 없다고 보고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8개월 후 연구 중이었던 모든 연구원이 동물성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어 유일하게 건강했던 그가 달에 가게 된다. 그는 달에 남겨진 유일한 사람이 되고 나서야 주목을 받게 된다.

늘 중간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모나지 않고 튀지 않으며 무난하게 사는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문유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지구를 구하고, 소박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다가 방사능에 노출되어 죽는다. 동물학 박사였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달에서 콩 재배에 성공하는 식물학 분야의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서사는 아주 평범해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 주목받게 되는 판타지 세상을 그린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그가 차출되어 달에 간 것이 작품 내적으로는 우연의 소산이지만, 작품 외적으로 보자면 판타지를 통해 현대인

의 꿈을 대리 성취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SF 서사는 현재도 많이 만들어지는 영화의 단골 재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영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잘 만드는 곳이 헐리우드이다. 외계인들이, 혹은 운석이, 혹은 괴생명체가 지구에 떨어져 인류가 멸망할 위험에 처하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가진 문법은 아주 분명하다. 키워드를 고른다면, 절대절명, 뜻밖의 위기 상황, 인류멸망의 위기, 영웅의 출현과 구원 등이 될 것이다. 『문유』도 기본적인 문법은 이와 유사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유』는 ‘심각함’이라는 설정을 버린다. 마블의 『마션』도 심각함을 버린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문유』는 감동도 놓치지 않는다. 헐리우드의 SF가 비장함을 앞세워 인류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영웅적인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문유』는 아주 평범하고 어찌 보면 소위 찌질하게도 보이는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다.

곧, 이 작품은 ‘평범함’이라는 개념을 소재로 삼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야기한 서사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평범함은 그냥 평범함이 아니라 매순간을 경쟁으로 내몰려야 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평범함이다. 문유의 평범함은 다른 사람에게 치여 혹은 기회를 얻지 못해, 또는 나서지 않아 묻혀진 평범함이라고 보아야 적절하다. 한국 사회가 그만큼 기회를 얻기 힘든 사회임을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문유의 이전 삶이 어찌다 그렇게 거기까지 휩쓸려 가게 된 것처럼, 달에 가게 된 것도 스스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다. 곧 거기까지는 주체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지구로 귀환하지 못한 것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찌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달에 혼자 남게 된 이후 문유의 삶은 변화한다. 혼자 남게 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한국인이자면 누구나 지닌 뛰어난 위기 대처의 특별한 능력으로 지구인들과 협력하여 또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소행성 폭파 계획을 수

행하고, 캥콩을 탈출선에 태워 보낸 뒤 문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회하는 방송을 한다.

“아마도 저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계속 여기 살겠죠? 계속……. 늘 중간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모나지 않고 튀지 않고 무난하게 살기. 근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하필 지구와 운석 중간에 저밖에 없잖아요. ㅎㅎㅎ 중간 중에선 가장 성공한 삶이 아닌가……? 저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잘 나가는 외톨이가 될 수 있어서 나름… 뭐 의미가 있었습니다.”¹³⁾

제시한 언술 속에 작가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인용은 인물의 말이지만,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주제가 함축된 언술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중간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모나지 않고 튀지 않고 무난하게 살기’ 바랬던 그가 지구와 운석의 중간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훌륭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중간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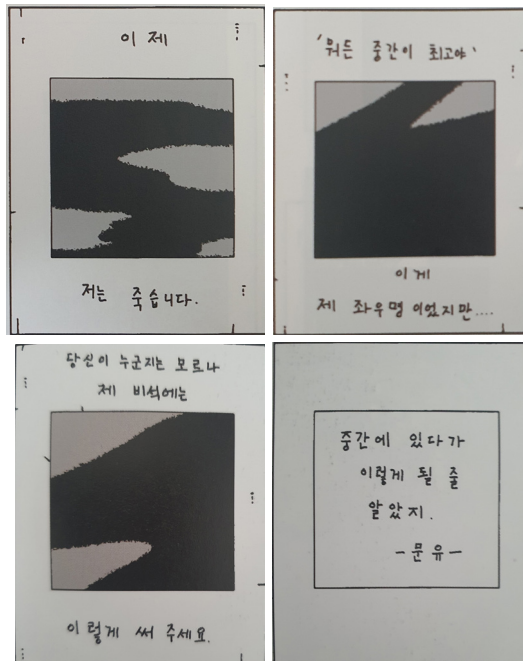
이 서사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 가기도 쉽지 않다’, ‘평범한 것이 가장 어렵다’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현재적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들어가고, 결혼하고,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차 한 대 있고, 아이 낳고 사는 것이 가장 박세고 힘들다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중간이 좋아. 나아서 뭐해.’라고 말했던 문유의 메시지는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앞에서도 살핀 바 있지만, 한국에서는 능력이 있어도 더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빛을 보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라는 이야기이며, 역으로 개개인의 경쟁력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된다. 문유는 달에서

13) 제4권, 248-251쪽에서 인용.

콩을 키우는 데 성공한다. 동물학 박사지만 식물학 업적을 남긴 것이다. 인간은 무엇을 할지 정해두고 살지만,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문유의 삶도 그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인생이 짙은 감동을 주는 것은, 평범했던 그가 인류를 위해 인간답게 자신을 희생했다는 점에 있다.

17년이 지난 후, 인간이 다시 찾은 달에서 그가 생존했던 흔적이 발견된다. 문유가 기록한 폴라로이드 사진을 통해 독자는 문유의 삶을 일부 짐작하게 된다. 방사선을 쬔아서 몸에 이상이 생겼고, 문유가 죽게 되었을 것이라는 암시이다. 문유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기록을 이렇게 남겨 놓는다.



〈그림2〉 제64화 아마도 저는...¹⁴⁾

“안녕하세요. 문유입니다. 언젠가는 분명 달을 찾아오시겠죠? 이젠 제 마지막

14) 제4권, 284, 285쪽에서 인용.

일기입니다. 몸이 낫길 바랬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뭔가 남겨야 할 것도 같고…….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려진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늘어나는 지구의 불빛을 보며 지구를 지켰다는 뿌듯함이 지금까지 절 살게 해줬습니다. ‘뒤편 중간이 최고야.’ 이게 제 좌우명이었지만…… 이제 저는 죽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나 제 비석에는 이렇게 써주세요.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 문유.”

이 웹툰은 평범한 인물이 자기 능력치 이상의 일을 하고 죽어간 이야기라는 점에서 감동을 자아낸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다’는 버나드 쇼 말은 뛰어난 인물이 자기 능력을 다 쓰지 못하고 죽음을 애석해한 묘비명으로 유명하지만,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는 문유의 묘비명에서 독자는 아주 ‘한국적인’ 감동에 마주하게 된다.

3. 동물, 환경, 지구와 인간의 관계성 복원

인간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삶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유』는 평범한 인생이라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님을, 그리고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한다.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이고, 선택의 순간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로를 생각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 곧 관계의 끈이라는 점도 이야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유』는 ‘평범한 보통 인물이 지구를 구한다’는 소영웅 서사의 큰 프레임을 중심에 두고, 문유와 켄거루 켄콩, 네나드 박사가 합을 이루는 ‘관계 맺기’ 혹은 ‘친구되기’의 서사를 맛깔나게 버무린 서사로 요약할 수 있다. 관계의 끈이 인간을 지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충족된 인간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문유』의 또다른 메인 스토리인 ‘관계 맺기’ 서사에 대해 살펴본

www.kci.go.kr

다. 먼저 『문유』의 스토리를 요약해 본다.

가능성: 문유가 지구가 멸망하고 달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여 고독감에 자살하려고 한다.

과 정: 문유가 캥거루 캥공과 네나드 스텍코비치 박사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한다.

결 과: 자연과의 관계성을 회복한 문유가 자신을 희생하여 새롭게 다가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구한다.

위의 요약은 총65화, 종이책으로 총4권에 해당하는 스토리를 서사의 심층에서 작품을 요약하는 미케 발(Mikye Bal)의 이론을 원용하여 간추린 결과이다. 요약에서 나타나듯, 주인공 문유는 소행성의 파편에 충돌하여 지구가 멸망하고 달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여 외로움에 죽으려고 한다. 그를 구원한 것은 놀랍게도 사육을 위해 지구에서 데려온 캥거루 캥공과 위성자들이 비밀을 은폐하려고 죽여 없애려 했던 네나드 스텍코비치와의 만남이다. 문유는 버려진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한다.

이 작품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유는 ‘관계 맺기’의 서사의 설득력과 흡입력 때문이다. 달에 혼자 버려지게 된 줄 알았던 문유는 캥거루 캥공과 네나드 스텍코비치 박사와 조우하고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관계 맺기의 서사는 웹툰 지면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코믹함이 극대화된다.

캥공의 먹이를 주는 장면이라든지, 스텍코비치 박사를 처음 찾게 된 장면이라든지, 처음에 서로 관계 맺기까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를 이 작품은 공들여 설명한다. 작자가 이처럼 관계 맺기 서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제47화 ‘삶의 끈’에 가서야 본모습을 드러낸다. 주인공 문유는 혼자 살아남았음을 알고 살고 싶지 않아 자살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자신도 모르는 와중에 변화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삶을 존속시킨 것이 수많은 빵과 물, 좋은 시설, 인류 최

후의 1인이라는 자긍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게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이들과의 관계의 끈 때문이었음을 깨닫는다.

때문에 문유는 스텍코비치가 한 말, 곧 “니가 혼자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네가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기지가 잘했던 거지”라는 말에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답한다.

“아니. 기지 같은 게 좋아서 산 거 아냐.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기지가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그런 거 아니야. 다 너네 때문인 거 알아.”



〈그림3〉 제60화 그런 거 아니야¹⁵⁾

제시한 언술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캥거루 캥콩과 스텍코비치 박사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문유가 삶의 의미를 회복했고, 자연과의 관계성을 회복한 문유가 자신을 희생하여 지구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은 관계성 복원 및 모색의 서사로 읽을 수 있다.

네나드 스텍코비치는 문유가 위기 아닌 위기에 처했을 때(사실 개인실은 공동구역과는 달라 가벼운 재료를 쓰기 때문에 문유 스스로도 건물터미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네나드도 이를 알려려고 했으나 송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달려와 문유를 구하고 죽는다. 기지

15) 제4권 181-183쪽.

내에서 거의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그는 자신이 방사능에 많이 노출되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산소 결핍으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유를 구하기 위해 우주복도 입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문유는 또다른 운석이 지구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지구를 위해 ‘인간답게’ 자신을 희생할 결심을 한다. 그는 자신이 타기로 되어 있었던 탈출선에 사육을 위해 데려온 캥거루 캥콩을 태워 지구로 쏘아 보낸다. 가족으로 키우려던 동물과 친구가 되고 친구가 된 동물을 구한다는 설정은 이 서사의 또다른 가능성을 열어 보여준다.

그가 캥콩을 자신 대신 지구로 보낸 것은 캥콩을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유에게 캥콩은 네나드 스텝코비치와 마찬가지로 친구였던 것이다.

그동안 즐거웠다. 진심이야, 이진. 물론 너한테 맞은 것도 많고... 죽을 뻔한 일도 있지만 감정은 없다. 일단 사과 먼저 할게. 널 이런 곳에 오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같이 못 가게 된 거... 정말 미안하다. 어쩔 수 있나. 넌 짐승이고 난 인간이라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인간답게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네가 지금까지 널 살린 거야. 이제 내가 널 살릴게. 고기로 이런 곳에 데려온 거 정말 미안해. 그래도! 그래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버티지도 못했을 테니까! ... 무사히 지구에 도착해서! 오래오래 살아!! 꼭도 만나고! 새끼도 엄청 많이 낳고!!! 아무튼!!! 진짜 고마웠다. 꼭 살아서 도착해라. 네가 살 지구는 내가 어떻게든 해 볼게. (제62화 네가 살 지구)¹⁶⁾

제시한 인용문에서 살필 수 있듯이, 문유는 캥콩에게 ‘널 이런 곳에 오게 한’ 것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단지 실험용으로 동물을 희생시키려 달에 데려온 것을 미안해한 것이다. 그리고 ‘넌 짐승이고 난 인간이라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말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살 지구는 내가 어떻게든 해 볼게’라는 그의 언술 속에는 지구에 대한 책

16) 제4권 214-221쪽.

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물론 소행성과의 충돌을 인간의 과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에서 행세를 해온 만큼, 지구를 수호할 책임도 주어져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문유는 자신의 탈출선에 캐콩을 쏘아 보내고 자신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한다. 그의 이런 태도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생명이라는 존재가치 면에서는 차등이 없다는 작가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지구가 인간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웹툰의 동물 보호,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한 작가의 현실 인식은 매우 현대적이다. 이 외에도 이 작품은 방송에 윤색을 더해 전혀 다른 이미지를 창조하는 방송의 속성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지구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지러진 욕망에 대한 비판 등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건드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캐롤 크루거는 휴 제임스와 함께 문유의 일상에 조직적인 윤색과 폭력을 가해 그의 일상을 송출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캐롤 크루거에게 감추인 비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서사에서는 또다른 서스펜스가 발생한다. 이는 인물이 알고 있는 것을 독자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서스펜스이다. 후에 그녀가 달에 있는 에너지 저장고에 관한 비밀을 은폐하고자 네나드 스텍코비치 박사를 죽이는 임무를 받고 달에 파견된 인물이었음이 밝혀진다.

한편, 이 작품은 달에 축적된 태양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강대국의 권력자들과 증거 인멸을 위해 레나드 스텍코비치 박사를 제거하려는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도 잊지 않는다. 달에 축적된 태양에너지를 전쟁에 쓰려던 무리들은 문유의 버튼 놀이로 모두 궤멸되는 것으로 코믹하게 처리된다.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가령 온갖 종류의 박테리아, 식물들, 동물들, 기후와 토양,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태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태학적 관계성의 담론은 근대 계몽주의 담론에 대응하는

대항 담론이 될 수 있다. 북친은 “‘사회적’ 비판과 ‘사회적’ 재구축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생태주의만이 자연, ‘그리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사회를 개조할 수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 준다”고 말한다.¹⁷⁾

사회적 생태론의 방법은 ‘변증법적 자연주의(dialectical naturalism)’이다. 변증법적 자연주의는 ‘변증법적 이성’에 근거한다. 변증법적 이성이란 근대 자연 과학적인 이성, 기계적이며 도구적인 이성과는 구분된다. 진정한 이성은 자연의 유기적인 전체를 포착하며 기계적 인과의 표면 아래서 작용하는 자유로운 생명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증법적 이성에 토대를 둔 사회적 생태론은 생태계의 위기를 자본의 속성에서 발견한다. 북친에 의하면 자본의 탐욕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자유와 해방이 아닌 지배와 억압의 관계로 만든 진화의 역사에서 기인한 것이다. 원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생존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화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사회적 관계는 생존을 위해 안정된 전체를 필요로 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상대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명령과 복종의 지배 구조가 자리 잡게 되고, 자본주의적 지배 관계 유형이 정착된다. 북친은 근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환경 문제 해결 방법은 “사회적 비판과 사회적 변혁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생태주의”뿐이라고 단언한다. 사회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서 생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차별, 인종 차별, 계급주의, 자본주의, 중앙 집권 구조의 국가주의 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북친의 생태주의가 ‘사회적 생태론’으로 명명된 이유이다.¹⁸⁾

생태학적 담론은 동물, 환경 나아가 지구와 인간의 관계성 회복을 중심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조석의 SF판타지인 『문유』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 복원을

17) 머레이 북친, 박흥규 옮김,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16쪽.

18) 머레이 북친, 문순홍 옮김, 『사회생태론의 철학』, 솔, 1997, 69쪽.

위해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해체된 재난 상황을 설정한다. 여기에 더해 문유는 달에 남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설정된다. 서사를 이처럼 극한으로 몰아간 이유는 새로운 관계성의 모색을 위해서이다.

『문유』 텍스트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코믹적 요소지만, 더욱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메인 스토리와 긴밀한 관계에 놓이는 것은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조석은 공감을 가운데 두고 코믹과 액션, 판타지와 과학을 버무리면서 스토리를 텔링해 간다. 조석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마음의 소리』일지 모르나, 최고의 작품은 단연코 『문유』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의 하나이다.

4. 결론

최근 드라마와 게임 등 다른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웹툰 IP가 확장되면서 웹툰 산업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웹툰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스토리뱅크’로서, 전통적 만화 장르를 품에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종합만화 플랫폼으로서, 차세대 문화산업의 수출문화 상품으로 성장했다. 이런 물량적 측면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장르는 한국사회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그 교육적 활용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웹툰을 환경교육에 활용한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¹⁹⁾ 본문에서 제시했듯이, 웹툰 『문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활용도 높은 서사로 생각된다.

첫째, 중등 학습자들의 쉬운 읽기가 가능하여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둘째, 생태학 및 사회생태학 담론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요한 주제를 지니고

19) 2023년 2월 28일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결과 관련 논문은 1편도 찾을 수 없었다.

있어 교육 텍스트로 삼기에 적절하다.

셋째, 한국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담겨 있어 글쓰기 및 토론 제재로 삼기에 적절하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제를 던져보면 좋을 것 같다.

작품 내에서 ‘중간’에 가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생각하는가?

작품에서 문유는 탈출선에 켄거루 켄콩을 자신 대신 태워 보낸다. 그 이면에 감추인 작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문유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크게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마지막 인류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지구에서 마지막 하루를 제재로 한 글을 써보자.

여기서는 간단히 제시했지만, 이 작품은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화제 제시와 논의가 가능하여 교육 제재로 삼기에 적절하다.

학습자의 연령에 맞는 재미와 감동을 두루 갖춘 작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웹툰은 좋은 교육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생태담론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동물, 환경,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격 생태론에도 포함되는 담론으로서 조석의 『문유』를 ‘평범함’에 내재한 사회적 경쟁과 갈등 서사, 동물 환경 지구와 인간의 관계성 복원 서사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분석하여 그 교육적 가능성을 살피는 데 목표를 두었다.

『문유』는 현실비판에 가닿아 있으면서도 코믹을 잃지 않았고, 거기에 공감을 더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철학의 문제에도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은 현재 발표된 웹툰 작품 중 최고의 생태학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을 미래사회 소양 교육의 큰 화두의 하나로 지목했다. 앞으로는 디지털이 더욱 심화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소위 ‘메타버스’란 말이 환기하는 세계이다. 디지털 세대를 아우르려면 디지털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좋은 텍스트를 교육 제재로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만화가 가볍기만 할 것이라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전략적으로 텍스트를 선정하고, 좋은 텍스트를 선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용문헌〉

조석, 『문유』 총4권, 위즈덤하우스, 2017.

김경애, 「갈등의 합의와 교육적 활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1집(20권 2호), 2016, 29~51쪽.

김경애, 「한국 웹툰 스토리의 특성과 문제점: 제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2019, 101~115쪽.

김성훈, 『만화웹툰작가평론선 조석』,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임광국, 「Murray Bookchin의 사회생태론을 통한 근대적 교육담론의 극복 가능성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최시한,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한국소설학회, 『현대소설 인물의 시학』, 태학사, 2000.

H. Porter Abbott. 우찬제·이소연·박상익·공성수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Henry Jenkins, 김정희원·김동신 옮김,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Joel Magny. 김호영 옮김. 『카이에 뒤 시네마 영화이론 4 - 시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Mikye Bal, 한용환·강덕화 옮김,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Murray Bookchin, 문순홍 옮김, 『사회생태론의 철학』, 솔, 1997.

Murray Bookchin, 박홍규 옮김,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Seymour Chatman, 최상규 역, 『원화와 작화』, 예림기획, 1998.

‘콘텐츠 IP, 가치를 높이는 확장 전략 톺아보기’, <Platum>, <https://platum.kr/archives/184011>

강서구, ‘이생망, 빨대죽… 신조어가 독해졌다’, <더스쿠프>, 2020. 1.28.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028>

서유진, “러 전쟁으로 환경범죄 2000건…온실가스 3300만t 배출”, <중앙일보>, 2022.11.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753>

클라이브 해밀턴, 『Growth Fetish』, Polity, 2003, https://ko.wikipedia.org/wiki/클라이브_해밀턴

한기호, “웹툰의 독자는 누구인가”,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https://blog.naver.com/khhan21/221888024037>

www.kci.go.kr

생태주의 교육 담론으로서 웹툰의 위상과 활용 - 조석의 『문유』를 중심으로 -

김경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을 미래사회 소양 교육의 큰 화두의 하나로 지목했다. 앞으로는 디지털이 더욱 심화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디지털 세대를 아우르려면 디지털의 관습으로 만들어진 좋은 텍스트를 교육 제재로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쉽고 학습자에게 친화적인 텍스트로서 ‘웹툰’이라는 장르에 주목한다.

웹툰은 K-문화의 스토리뱅크로 최근 떠오른 웹 콘텐츠의 하나로, 가볍게 즐기는 문화라는 의미로 소위 ‘스낵컬처(Snack culture)’로도 알려져 있는 디지털 서사물이다. 웹툰이 주목되는 이유는 웹툰이 중등 학습자들에게 매우 친근한 서사물로서 각종 사회적 이슈들을 무겁지 않으나 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석의 『문유』가 사회적 생태 담론에 포함될 뿐 아니라, 재난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동물, 환경,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격 생태론에도 포함되는 담론임을 증명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작품을 ‘평범함’에 내재한 사회적 경쟁과 갈등 서사, 동물 환경 지구와 인간의 관계성 복원 서사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교육적 가능성도 살펴보았다.

『문유』는 현실비판에 가닿아 있으면서도 코믹을 잃지 않았고, 거기에 공감을 더했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철학의 문제에도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작품은 현재 발표된 웹툰 작품 중 최고의 생태학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제어: 생태 담론, 사회적 생태론, 환경 교육, 한국적 평범함, 위로의 서사

〈Abstract〉

A Study on Status and Application of Webtoons as Ecological Education Discourse

- Focusing on Cho-Seok's *MoonYou*-

Kim, Kyung-Ae

(Mokwon University)

We live in the digital age.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pointed to 'digital' as one of the big topics of education for future society. In the future, the era of digital deepening will come. In order to encompass the digital generation, efforts are needed to select good texts made by digital customs as educational sanctions. In this article, we pay attention to the genre of 'webtoon' as an easy and learner-friendly text.

Webtoons are one of the web contents that have recently emerged as a story bank of K-culture, and are also known as 'Snack culture' in the sense of a culture that is enjoyed lightly. The reason why webtoons are attracting attention is that webtoons are very friendly narratives for secondary school learners and deal with various social issues carefully, although not heavy.

In this article, Cho-Seok's *MoonYou* is not only included in the social ecological discourse, but also aims to prove that it is included in the full-fledged ecological discourse in that it seeks a way for animals, environment, and humans to live together in the extreme situation of disaster. To this end, the work was analyzed in two contexts: social competition and conflict narratives inherent in "ordinaryness" and the restoration narra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imal environment earth and humans, and its educational potential was also examined.

MoonYou has not lost comicality while living in reality criticism, added

www.kci.go.kr

empathy to it, and approached the issue of philosophy of how to live. In this context, this work can be said to be the best ecological discourse currently published among webtoon works.

Keywords: Ecological discourse, social ecology, environmental education, the concept 'Ordinaryness' in Korea, healing narrative

투 고 일	2023년 3월 05일
심 사 일	2023년 3월 13일
게재 확정일	2023년 3월 21일